

궁핍할수록 소중한 책

윤재근

한양대 교수 · 국문학

요즘 산에 가면 남자들이 많다. IMF 이전만 해도 평일 산에 가면 열이면 여덟이 아낙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평일에 정정한 남정들이 산에 올라와 앉아서 명하니 멀리 내다보는 모습들이 자주 눈에 들어온다. 아무래도 IMF 한파(寒波) 탓이 아닌가 싶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은 꼭 아차산을 찾는다. 그전에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산등성이를 오르내렸을 뿐 착잡한 생각이나 서글픈 느낌으로 마음이 처져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요사는 산을 오르내리며 풀이 죽어 구겨진 옷처럼 축 처진 남정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특히 혼자 산에 올라 우두커니 앉아 있는 남정들은 더 그렇다.

한참 일할 나이에 일터를 잊고 산에 올라 자기와 마주하고 있는 외로운 남정들일수록 산새의 울음소리를 슬프게 듣지 말았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하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건강을 다진다는 다부진 생각을 괴로운 남정들이 가다듬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 그러나 산 정상에 갔다가 되돌아 올 때에도 여전히 동그마니 앉아 있는 외로운 사내들을 다시 보게 될 때마다 나도 덩달아 풀이 죽는다. 하지만 그럴수록 절망할 수 없다는 뜻이 강해지기도 한다.

IMF 한파로 동사(凍死)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을 담금질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각오를 우리 모두 다져야 한다. 엎질러진 물이라고 포기할 수는 없다. 새 물은 새 그릇에 담아야 한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모두 앞날을 위해 지난날을 부끄럽게 여기고 겸소하고 겸허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싱싱한 초목처럼 천지에 우뚝 설 수 있는 미래가 있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집단이기 때문이다.

'소득 만불이 5천불로 줄었다고 절절멜 것은 없다. 실직했다고 주눅들어 끝장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고 산 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 법이다. 우리 모두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이웃 정을 살려 서로 돋는 한 마당을 일구어가면서 다시 땀 흘릴 각오를 하면 된다'고 나도 그늘 밑 바위에 앉아 마음을 다졌다.

달려 빛 내다 흥청망청거렸던 정신을 부끄러워하면서 다시는 소 잊고 외양간 고치는 짓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만 한다면 참으로 다행이겠다. 당분간 경제적으로 궁핍을 당한다 하더라도 겸소하고 겸허한 정신으로 재무장한다면 산 위에 올라 명하니 앉아 있는 남정들을 웃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확신이 곧 궁할 때 이룩되는 자부심이다. 이럴 때 책은 소중하다. 책을 가까이 하면 자신의 내면세계를 당당하게 가꾸어갈 수 있다. 그러면 스스로의 자부심도 커진다. 이런 자부심을 일컬 궁즉통(窮則通)이라고 한다. ♦

출판저널

1998년 6월 5일 제 237호
격주간 · 매월 5, 20일 발행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초점 2 출판계 궁금한 일, '이것이 알고 싶다'

최근 일련의 출판계 움직임 둘러싼 속 이야기

**특집/만화출판의
오늘과 내일 4 '만화 평론가가 뽑은 좋은 만화'**

김이랑/이재현/나호원/한창완/
오은하/박인하/손상익/백정숙

7 만화 '제자리 찾기'에 힘쏟는 작은 모임들

8 지하에서 지상까지 판치는 불법복제만화들

9 한국 만화시장의 실세는 일본만화

해외 서점 탐방 10 만화천국 프랑스의 만화전문서점 '앨범' — 최연구

인터넷 출판향해 11 일본 쇼가쿠칸 출판사 홈페이지 — 한영주

세미나 12 음란폭력성 간행물과 청소년 보호

스케치 13 '98 알뜰도서전 … 여의도 중소기업전시관서 개최

출판화제 14 오늘의 경제를 읽는 새 흐름 · 외

만화 15 책과 오대리 — 박시백

확대서평 16 시드니 민츠 《음식의 맛, 자유의 맛》·외 — 한경구

화제의 출간 17 〈자연 속의 인간〉 시리즈 · 외

주제가 있는 책읽기 18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풍부한 시각 — 이상훈

'일상생활의 사회학' 이 시도하는 도전

얼굴 19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 펴낸 박석무 학술전통재단 이사장

초기작과 최근작 사이 20 《상황과 인간》에서 《기짜의 진실, 그 환상》까지 — 김주연

책갈피 산책 21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을 읽고 — 박정오

연재 에세이 22 서재의 미학, 문방 한권의 서책을 위해 — 이광주

컬러 화보 24 독서캠페인 '책으로 여는 세상' 이모저모

서평 26 김숙자 《대한제국의 구국민권의식》 — 이송희

김화영 《문학상상력의 연구》 — 김진식

27 니콜라예비 《용의 아이들》 — 김세희

28 펀커 《언어본능》 — 이승복

파커 《초이론을 찾아서》 — 신상진

29 김연옥 《기후변화》 — 문승의

이 책 그 사람 30 《은행나무 이야기》 펴낸 김진경씨

《역동의 히말라야》 펴낸 남선우씨

31 《나는 일본문화가 재미있다》 펴낸 김지룡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다시 보는 사진집 48 ⑪ 김기찬 《골목안 풍경》

표지/만화출판의 오늘과 내일

(사진 한준호 · 그래픽 디자인 윤정자)